

추석 앞둔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명절 분위기 '물씬'

광주 양동시장·말바우시장 제수용품 준비 등 발길 잇따라 치솟은 물가에 가게 부담 역력...“은누리상품권 환급” 반색

“물가가 너무 올라 꼭 필요한 것만 사도 예상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덕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어요.”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10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은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찾은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손수레를 끌거나 장바구니를 든 이들은 싱싱한 생선, 과일, 채소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꼼꼼히 살폈다.

상인들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오늘 채소가 싸고 좋다”거나 “얼마까지 보고 오셨냐”고 묻는 등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가게에서 “새로 들어왔다”는 상인의 말과 함께 조기, 갈치, 새우, 꽃게 등이 좌판에 놓여져 일순간 지나가던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 중 새우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가격을 물은 시민에게 “3kg에 7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오자 그는 “지난 주에는 6만원

이었는데, 그새 1만원이나 오른 것이냐”며 상인에게 되묻고는 발길을 돌렸다.

여는 때보다 높은 물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은 농산물 코너에서도 쉽게 목격됐다.

광주 남구에서 온 이정숙(70대·여)씨는 “얼마 전에 배추 한 포기에 7천원이었는데, 오늘 1만원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며 “가격이 다 비싸해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하지만 부담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물가에 구매를 망설이던 시민들의 부담을 그나마 덜어준 건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였다.

환급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양동시장 환급 품목은 농축수산물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고 고객지원센터에 가면 3만4천원 이상에 대해서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씩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지난 9일 장날이었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주성학기자

전날이 장날이었던 북구 말바우시장도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첫 날과 맞물려 여는 때보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30년째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을 사기를 주저하는데,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구매력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최모(30대)씨는 “연초부터 물가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 ‘장사

를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며 “상품권 환급 행사가 그야말로 ‘단비’ 같다. 명절 만큼이라도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이후 김씨는 “그간 안이하게 대응했으니,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하려고 진술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채권자와 임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임씨가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 재개된다.

이후 김씨는 “그간 안이하게 대응했으니,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하려고 진술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채권자와 임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임씨가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 재개된다.

/주성학기자

5·18 단체 “특전사회와 공동선언 사죄”

부상·공로자회, 오월어머니집 찾아사과 당시 단체장 불참 “진정성 의문” 목소리

지난해 특전사동지회와 ‘2·19 대국민 선언식’을 가지며 오월어머니집과 대립각을 세우다 퇴진 집회까지 연 오월공법단체들이 당시의 행태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켰던 당시 단체장들이 불참한 데다, 두 단체의 공식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5·18민중화운동 부상·공로자회는 10일 오후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지난해 김형미 관장 퇴진 집회를 열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2·19 대국민 선언식을 가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 오월어머니집도 함께였다.

이에 두 공법단체는 오월어머니집을 강하게 비난하며 김형미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맞섰다.

이날 양 단체는 “발포 명령자 등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전사동지회와의 만남은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11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대국민공동선언문 폐기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미 관장은 “방문 사과한 것은 다행이나 당시 항의 집회에 있었던 당사자(단체장)들도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성학기자

전동휠체어로 보행자 치어 죽게 한 피의자 혐의는?

檢 “업무상과실치사” vs 변호인 “단순 과실치사”...재판부 판단 관심

전동휠체어로 치인 보행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자 피의자 혐의를 두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를, 변호인은 ‘단순 과실치사’를 각각 주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곡성군 모처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B(80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가 폐렴 등으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

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A씨 측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운수업처럼 차를 사용해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운전이 업무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리 추구 없이 이동의 목적

으로만 차를 모는 행위 자체가 ‘운전 업무’로 인정돼왔는데,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전동휠체어 운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A씨가 사고 자체는 인정함에 따라 추가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을 진행, 검찰은 금고 1년4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안재영기자

‘도박 자금’ 형태·액수 놓고 채권자-임창용 공방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전 KIA 타이거즈 선수 임창용(48)씨에 대한 재판에서 대어 자금 액수와 형태를 놓고 채권자와 임씨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첫 증인으로 나선 A씨는 “1억5천만원을 빌려줬고, 임씨가 7천만원을 갚았다고 생각해 미변제

8천만원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증인석에 선 임씨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현금이 아닌 칩으로 받았다”며 “1억5천만원까진 안된다고 생각해 7천만원을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는 검찰의 질의에는 도박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거짓 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임씨는 “그간 안이하게 대응했으니,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하려고 진술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채권자와 임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임씨가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 재개된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